

2021년도 국정감사  
국토교통위원회

# 업 무 현 황

2021. 10.

 국가철도공단

# 목 차

I. 일반현황 .....	1
---------------	---

II. 중점 추진계획 .....	3
-------------------	---

1. 철도 중심의 미래 교통체계 기반 마련 .....	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2. 시설관리자 역량 강화로 안전한 철도 구현 .....	6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3. 핵심기술력 향상을 통한 더 빠르고 편리한 철도 실현 ..	1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4. 철도의 지역교통 거점화로 철도 자산가치 혁신 .....	1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5.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 .....	14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[참고]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(전국, 수도권) ..	15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# I

## 일반 현황

### 1. 연 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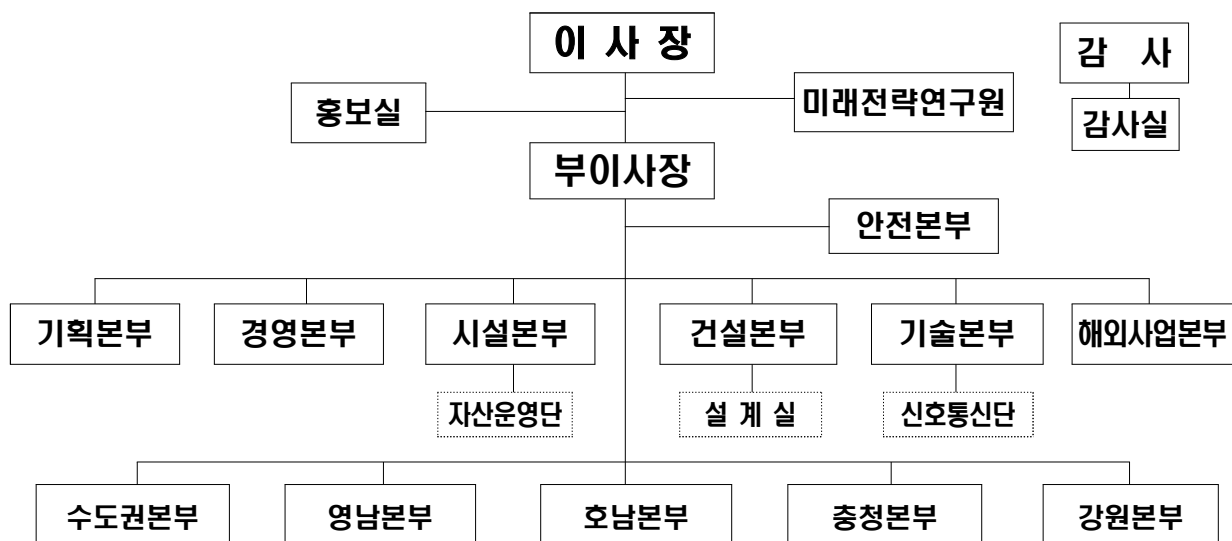
- '03. 7.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(공단 설립근거) 제정·공포
- '04. 1. 1 한국철도시설공단 출범
  - \* 철도청 건설·시설부문 +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
- '20. 9.10 기관 명칭 변경(한국철도시설공단 → 국가철도공단)

### 2. 주요임무

- 고속·일반·광역철도 등 국가철도망의 건설 및 관리
-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개발 및 지원
-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
- 역세권 및 철도 연변의 개발·운영

### 3. 조 직

- 정원 2,170명, 7본부 / 1실 / 2단 / 1원 / 5지역본부



#### 4. '21년 예산·재무 현황

##### ○ 예산현황

(억원)

구 분	'20년 (A)	'21년 (B)	대 비 (B-A)
총 계	90,804	100,519	9,715
<국 고>	46,844	57,593	10,749
<자체조달>	43,960	42,926	△1,034
• 채권발행	24,487	25,637	1,150
• 선로사용료	10,529	8,259	△2,270
• 자산수입 등 기타	8,944	9,030	86
- 사업비	59,620	70,224	10,604
• 고속철도	962	4,515	3,553
• 일반철도	23,819	32,428	8,609
• 광역철도	5,124	5,563	439
• 수탁공사	1,535	2,162	627
• 시설개량	16,140	13,441	△2,699
• 유지보수비	10,141	9,686	△455
• 기타사업	1,899	2,429	530
- 관리비	2,268	2,558	290
• 인 건 비	1,573	1,652	79
• 경상경비 등	695	906	211
- 차입원리금	28,882	27,713	△1,169
- 예비비	34	24	△10

##### ○ 재무현황

('21.6월 말 기준)

구 분	규 모	비 고
자 산	19조 1,925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속철도 시설관리권</li> <li>호남·수도권 고속철도 이관 전 유형자산</li> </ul>
부 채	20조 7,452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속철도 자체투자(경부·호남 50%, 수도권 60%)</li> <li>선로사용료 회수부족에 따른 부채</li> <li>* 금융부채 19조 4,500억원</li> </ul>

## Ⅱ 중점 추진계획

### VISION

국민을 잇는 철도, 세계를 여는 철도

국가발전  
철도망 구축

국민안심  
철도안전체계 강화

철도산업  
미래성장 선도

사회적 가치 창출

### CORE VALUES



### 중점 추진과제

- ◇ 철도중심의 미래 교통체계 기반 마련
- ◇ 시설관리자 역량 강화로 안전한 철도 구현
- ◇ 핵심기술력 향상을 통한 더 빠르고 편리한 철도 실현
- ◇ 철도의 지역교통 거점화로 철도 자산가치 혁신
- ◇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

## 1. 철도 중심의 미래 교통체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### 1.1 「2050 탄소중립」 실현이 가능하도록 국가철도망 구축

#### ① 내실 있는 미래 철도망 준비로 철도의 역할 제고

- 철도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등 지속가능한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장기 추진방안 발굴
  - \* 교통체계 개선방향, 철도 투자방향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검토
- 미래철도 추진전략도 함께 준비하여 장래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
  - \*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개선방안('21.12), 중장기 차량기지 효율화 방안('21.11) 마련

#### ②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국가철도망 실행방안 마련

- 지역거점 간 고속 연결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('21~'30년) 실행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('21.10)
  - \* 사업추진 효과, 재원 조달, 열차운행 효율성 등을 고려 투자 우선순위 검토
  - \* 특히,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적극 지원
- 철도노선의 효율적 연결과 운영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조사 추진
  - \* 부산~울산~양산 광역철도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 5개 사업, 부산신항 연결지선 등

#### ③ 새로운 철도편익 발굴 등 철도건설 투자확대 기반 강화

- 도로에서 옮겨오는 수요 중심의 평가에서 철도 자체 편익 중심\*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철도 평가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
  - \* 운전자 피로도 감소, 차내 여유 시간 증가, 대기오염·교통사고 개선 편익 등 반영
- 예타 중인 수색~광명, 문경~김천 등 8개 노선의 경제성 확보 총력
  - \* 호남선(가수원~논산) 고속화, 과천선 급행화, 제2경인선, 새만금항인입철도 등

## 1.2

## 속도감 있는 철도망 확충으로 「국가 균형발전」 선도

### ① 추진 중인 철도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

- 주요 간선을 단계적으로 고속화하여 지역거점 도시 간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(260km/h급 열차 운행)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
  - \* '21년 중부내륙선 (이천~충주 54km), '23년 중앙선 (도담~영천 145km), 서해선 (홍성~송산 90km), 경전선 (부전~순천 166km), 중부내륙선 (충주~문경 39km) 등
- 금년 개통 예정인 중앙선 영천~신경주 (12월), 중부내륙선 이천~충주 (12월) 등 6개 사업은 종합시운전 등을 거쳐 차질없이 개통
  - \* 대구선 동대구~영천 (9월), 동해선 일광~태화강 (10월) / 태화강~신경주 (12월), 경의선 임진강~도라산 전철화 (11월)

### ② 신규사업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기에 착수

- 경부고속철도 평택~오송 2복선화, 남부내륙철도, 대구산업선 등 9개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즉시 설계 착수토록 준비 철저
  - \* 충북선 고속화, 석문산단 인입철도, 수서~광주, 경전선 광주송정~순천, 신분당선 광고~호매실, 충청권광역철도 옥천연장
- 인덕원~동탄 (4월), 월곶~판교 (10월) 등 4개 신규사업 적기 착공 및 호남고속 2단계 (광주송정~목포) 공사 본격 추진
  - \* 경부고속 대전북연결선 (10월), 강릉~제진 (12월)

### ③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민자사업 적기 추진

- GTX-A노선 '23년 말, 신안산선 '24년 말 개통 목표로 추진
- GTX-B노선 RFP 고시 ('21.12), C노선 실시협약 체결 ('21.12) 적극 지원
  - \* GTX, 신안산선 완공 시 수도권 인구의 약 77%가 급행철도 수혜

## 2. 시설관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습니다

### 2.1 노후시설은 집중 개량하고 안전시설도 강화

#### ① 예방중심의 철도시설 관리를 위한 철도시설 성능평가 도입

- 궤도, 건축물, 전철, 신호통신 등 분야별 성능평가와 정밀진단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착수 ('21.11)
  - \* 안전성, 내구성 평가방법, 유지관리 기준 등 마련하여 성능평가 도입
- 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 보강 시행
  - \* 성능평가를 반영하여 예산 확보 ('21년 1조 2,971억원→ '25년 2조 2,284억원)

#### ② 경부고속철도 1단계 및 수도권 광역철도 구간의 노후 전기설비 개량

- 고속철도 변전설비 (천안~대전 8개소)와 배전선로 (70km) 우선개량 착수('21.3)
  - \* 고속철도 1단계 (광명~대구) 이외 구간은 효율적 방안 마련하여 개량 ('21.6~'26년)
- 수도권 광역철도 (7개 노선) 전차선로 등 노후 전기설비 집중 개량
  - \* 분당선 등 3개 노선 (85km) 본격 개량 및 경인선 등 4개 노선 (203km) 착공 (~'22년)

#### ③ 철도 안전확보를 위한 내진성능 등 시설물 안전 강화

- 강화된 내진기준 ('18.12)을 반영하여 교량·터널·역사 내진성능 확보
  - \*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한 5,341개소와 잔여분 575개소 등 '25년까지 총 5,916개소 개량  
☞ ('21년 시행분) 성능평가 461개소, 실시설계 107개소, 보강공사 7개소
- 노후시설과 재해 취약시설을 집중 개량하여 호우 등 선제적 대비
  - \* (총 12,805개소) 기시행 6,222개소, '21년 719개소, '22년 이후 5,864개소
- 철도역, 무인기능실 등에 영상감시장치 (CCTV) 단계별 설치 (~'22.5)



## 2.2

## 철도시설의 디지털화로 「디지털 뉴딜」 선도

### 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철도시설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

- 신규철도 건설 시 BIM을 확대 도입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하여 철도시설 이력관리의 디지털화 촉진 ('21.11)

\*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: 3차원 정보모델링으로 시설물의 모든 정보를 설계단계에서 디지털 모형으로 통합하고 시공·유지관리 단계까지 연계

[1단계] 기반구축	[2단계] 고도화	[3단계] 안정·확산
⇒ 정보시스템 구축·개통 • 2018~2021.7	⇒ 모바일, GIS(3D) 구축 • 2022~2025	⇒ BIM, AI등 연결 • 2026~

- 차상검측 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도입하여 인력위주에서 첨단 검측 데이터 중심으로 유지보수체계 전환

\* 유지보수 및 검측장비 30대 도입 : '20년 2대, '21년 13대, '22년 15대

### ② IoT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실시간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

- 시설물 상태 (변위, 응력, 온도 등)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는 IoT (Internet of Things) 기반 시범사업 추진

\* 서원주~횡성 (11km) 구간에 교량, 터널, 사면 등 시범구축·검증 추진

- 전기·변전설비도 IoT와 연계하여 자동검측, 원격감시 설치 (~'22년)

### ③ 재해 취약개소를 DB화하는 등 선제적인 위험시설 관리체계 확립

- 철도 비탈면을 전수조사하여 DB 관리시스템 구축 ('21.10)

\* 경부선 등 51개 노선 2,200개소 정밀조사 및 위험도 평가 시행

- 지하 철도구조물 상부의 침하, 공동 등에 대한 전수 조사 착수 ('21.10)

\* 지표투과레이더 (GPR)를 이용하여 725개소 (98.4km) 조사 추진

## 2.3

##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철도 구현

### ① 방역기능 강화로 코로나-19에도 걱정 없는 철도이용 환경 제공

- 승·하차 동선 분리, E/L 비접촉 버튼, E/S 자동살균 등을 적용하여 밀집도 완화, 접촉 최소화 환경 제공
  - \* '21년 총주역사 등에 시범 적용하고 향후 확대방안 검토
- 비접촉 요금징수 기능의 '스마트게이트' 개발 ('23.1)
  - \* 스마트폰을 교통카드 매체화하여, 자동개집표기 통과 시 자동 검지하고 이용요금 지불

### ②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철도역 조성

- 모바일을 이용한 이동 경로 안내,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와 시설물 원격제어를 위한 스마트 철도역사 구축 시범사업 추진
  - \* '21년 수서, 오송, 익산, 부산역 등 4개역 구축 (~'22년)
- IoT 기반 지하역사 공기질 자동제어 시스템 적용 ('21.1~)
  - \* '21년부터 지하역사 신축 설계시 전면 반영 (시흥시청역 등 25개 역)

### ③ 누구나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 편의시설 확충

- 여자화장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비상벨 확대 적용 ('21.11)
  - \* (현재) 여자 화장실 각 실에만 설치 ⇒ (변경) 출입통로 등에 추가설치
- 역사 수유방에 신원확인 후 출입 가능하도록 '비디오폰' 설치 ('21.7)
  - \* 역무실에서 출입자의 신원을 영상·음성으로 확인 후 출입문 원격개폐
- 철도 터널(200m 이상) 내 재난방송 수신설비 확충 (~'25년)
  - \* '21년 수도권광역철도 33개소 설치, '22년 이후 수서고속 율현터널 등 장대터널 시행

## 2.4

##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철도현장 조성

### ①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 ('22.1) 대비 안전 강화

- 기본 안전수칙 (안전모 착용 등) 준수 여부 반복점검 지속 시행
  - \* 미준수 시 사고 여부 관계없이 감리단장, 현장소장 등 책임자 엄중 제재
- 高위험 현장을 선정하여 경영진 특별점검 등 집중관리 계속
  - \* 산업재해 분석 등을 바탕으로 총 557개 현장 중 43개 (8%) 중점관리 현장 선정
- 중대재해 집중 예방기간을 설정하여 고강도 안전관리 (8~10월)
  - \* 사망사고 다수발생 기간 (8~10월)에 평시 대비 2배 (점검횟수 · 인력) 점검

### ② 철도현장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위험요인 개선

-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도입 ('21.3)
  - \* 안전고리 확인장치, 작업발판 경보기 등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직접 반영
- 전차선로 고소(高所) 작업자에 대한 추락사고 위험요인도 개선 ('21.6)
  - \* 작업용 대차 안전성 강화, 신규장비 도입 검토, 전철주 안전고리 설계기준 개선 등
- 근로자 피로도 감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일요 휴무제 전면 도입 ('21.1)
  - \* 일요일 휴무제 조기 정착을 위해 작업시 책임자 상주, 승인절차 등 마련
- 터널작업자 보호를 위한 열차접근 경보장치 구축 ('21년 32개소, ~'24년)

### ③ 설계단계부터 작업 안전성 검토 철저히 시행

- 현장 설계변경 시 안전성 검토를 추가 시행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 ('21.7)
  - \* 외부 안전전문가 참여하여 공법변경 등 작업환경 변화를 안전대책에 반영
- 소규모 열차 운행선 공사에 대해서도 상시 작업 안전성 검증 강화
  - \* '20년도 23개 사업 1,061건 개선 → '21년도 13개 사업 안전성 검증추진

### 3. 핵심 기술력을 향상하여 더 빠르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겠습니다.

#### 3.1 저탄소·친환경 기술 확대로 지속가능 철도교통 실현

##### ① 「그린뉴딜 정책」 뒷받침을 위한 그린 철도전략 수립

- 전철화 ('20년 74% → '25년 86%), 에너지 절감 등 철도부문 탄소중립 이행 추진전략 마련 ('21.11)
  - 역 주차장 '전기차 충전시설' 확대, 철도부지 내 '수소연료발전'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에너지전환 지원도 검토
- \*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기준 마련 (주차 100면 당 1기 → 2~5기, '21.7)

##### ② 에너지 저감 기술 확대로 제로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

- 고효율 친환경 역사 건설을 위한 에너지 자립률 확대 추진
  - \* '22년까지 30% (충주역 등 4개역 설계 반영) → '23년 40% → '25년 60%
- 심야 전기를 저장하여 사용하는 '에너지저장장치(ESS)' 확대 구축
  - \* 포항~삼척 시범적용 결과 검토하여 확대구축 방안 마련 ('21.10)
- 철도시설(터널, 역사 등) 조명밝기 자동조절 기술로 전력소비 최소화
  - \* 이용상황, 열차운행, 주변밝기 등에 따른 적용방안 및 설치계획 수립 ('21.10)

##### ③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친환경 기술 적용 확대

- 변전설비 전력개폐장치 절연가스를 친환경가스로 전환 ('21.3~)하여 전면 적용 ('25년)하고, 변압기 절연유를 친환경 절연유로 개선 ('25년)
  - \* (개폐장치) 온난화지수가 높은 육불화황가스(SF6) → 친환경 절연매질(Dry air 등)
  - \* (변압기) 일반 절연유(광유) → 생분해도가 높은 친환경 식물유 등
- 전원공급용 축전지도 친환경 전지로 표준화 추진 ('21.10)
  - \* 밀폐형 납축전지 → 친환경성,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지로 대체

## 3.2

## 한국형 디지털 철도기술 상용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

### ① 한국형 열차제어기술 (KTCS-2)과 무선통신망 (LTE-R) 상용화

- 시범사업을 통해 열차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 ('21.12)
  - \* 시범 설치 (전라선, '21.3) → 시험 및 시설물검증 ('21.12) → 쏜 철도망 확대 구축 (~'32)
- 철도통합무선망 (LTE-R)의 조기 전국 철도망 구축을 추진 ('27 → '25년)

### ② 전력계통을 완전 디지털화하고 철도교통 관제체계도 고도화

- 아날로그 방식의 철도 전력계통을 전면 디지털로 전환 추진
  - \* 지능형 전자장치 개발, 광통신 기반 네트워크 구축 등 마스터플랜 수립 ('21.6~'22.6)
- 첨단기술(AI, IoT 등)을 적극 활용하여 제2 관제센터(오송)를 구축하고, 기존 관제시스템(구로)도 고도화 추진
  - \* 관제시스템 정보전략계획 수립 착수('21.8) → 제2관제센터 구축('26) → 구로관제 고도화('28)

### ③ 400km/h급 고속철도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상용화 기반 마련

- 철도 핵심분야 (궤도, 전차선, 신호, 통신)에 대한 400km/h급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성능검증 절차 정립 ('21.12)
  - \* 궤도분야 체결장치·분기기 등 개발('21.7~'22.12), 전차선로 자재 46종은 개발 완료
- 평택~오송 2복선 사업에 400km/h급 기술 적용 (노반, '21.9) 등 상용화 추진
  - \* 초고속철도 상용노선 운영 등을 통한 철도기술 고도화 및 해외수출 기반 마련

### ④ 민간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해외진출 플랫폼 역할 강화

- 상용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·차량제조사·운영사 등과 Team Korea 구성하여, 정책펀드 활용해 타당성 조사 후 국가별 맞춤형 사업 제안
  - \* 인니 발리공항 연결 LRT(9.4km) 및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철도사업(84.9km) 입찰 추진
- 중소·중견기업이 철도용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 인증 취득 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
  - \* 27개사 39건 지원 (16건 국제인증 취득), '21년 예산 20억 (전년대비 100% 증가)

## 4. 철도의 지역교통 거점화로 철도자산 가치를 혁신하겠습니다.

### 4.1 역세권 개발 등 철도자산을 가치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

#### ① 지역거점화를 고려한 철도부지 개발에 최적화된 사업모델 발굴

- 유허부지, 폐선, 폐역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 신규모델 마련
  - \* 개발대상지 선정기준, 사업방식별 수익성 분석 기준 등 구축('21.9~'22.8)
-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계 정비, 제도개선 지속 추진
  - \* 역세권 유형에 따른 개발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적용(서울역, 춘천역)

#### ② 역세권 개발과 환승센터 구축으로 철도와 지역의 상생 발전 도모

- 수서역세권은 공공주택·상업구역 등 단지조성 및 순차적 분양 추진

용지매수	단지조성	토지분양	사업준공
⇒ 국공유지 포함 · 2018~2021	⇒ 지장물 이설·철거 · 2019~2022	⇒ 순차적 시행 · 2020~2022	⇒ 부지조성 완료 · 2023

- 수서역환승센터는 교통수단 간 입체적 스마트 환승이 가능하도록 사업주관자를 선정('21.6)하여 복합개발 추진 중
  - \* 수서역 일대에 환승센터 및 지하 9층·지상 26층 규모 판매·업무·숙박시설 9개동 조성
- 울산역복합환승센터는 인·허가 후 공사 착공('21.12),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는 지자체\*와 통합개발 추진('21.12)
  - \* 아산시 기본구상 결과('21.11)에 따라 충남도에서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예정

#### ③ 폐선·폐역부지를 최적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

- 중앙선 단양군 구간(단성역~죽령역)은 레일바이크, 풍경열차 등 관광 시설로 개발 추진 중
  - \* 사업주관자 선정('21.2) → 사업추진협약 체결('21.3) → 출자회사 설립('21.9)
- 舊해운대정거장 및 舊안동·포항·경주역 구간은 이해당사자인 지역과 충분히 협의하여 개발계획 마련('21.12)

### ① 철도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강화

- 철도 국유재산 관리 실태 및 이용 현황 전수조사 추진 ('21.5~)
  - \* 철도 유휴부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유형별 (보존, 활용, 매각, 기타)로 분류하여 유휴부지 활용 제고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
- 자산정보 (DB)와 지리정보 (GIS)를 연계하여 재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
  - \* 철도재산 정보 및 기재부, 국세청 등 행정정보 통합 연계 ('20.7~'22.6)

### ② 지자체,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여 철도재산 활용 다각화

- 지자체와 함께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확대 (30→35개)
  - \* 지자체 컨설팅 등을 통해 문화플랫폼, 관광지 조성 등 활용 다변화 지원
-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대규모 상업시설 (민자역사 등) 활성화 방안 마련 ('21.9)
  - \* 식음료 (F&B) 위주 단일 업종 → 융합업종 (서점+카페 등)으로 확대하여 탄력적 운영
- 창업·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스타트업라운지 2개소 추가 조성
  - \* ('20년) 3개소 (공덕역·대전역·벡스코역) → ('21년) 2개소 (동탄역, 오송역)

### ③ 철도자산 내 생활SOC 확대로 국민과 함께 하는 철도의 가치 전파

- 지역사회의 보육 지원을 위하여 철도어린이집 확대 조성
  - \* 평내호평역 ('19년) → 탄현역 · 여주역 · 행신역 ('21.10~11 착공, '22.3~6 개원)
- 중증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섬섬옥수 (네일케어) 사업 확대 등
  - \* ('19년) 부산역 → ('20년) 익산, 대전 → ('21.6) 용산, 김천구미 → ('21.12) 강릉, 울산
- 영등포역 광장, 舊서울역 폐쇄 주차램프 등을 활용 문화공간 지속 조성



## 5.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 하겠습니다.

### ① 코로나-19 극복을 위한 조기 예산 집행 등 사회적 책임 적극 이행

- 코로나-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지원을 위해 상반기 조기예산 집행
  - \* 5조 9,346억원 중 상반기에 목표(60.9%) 대비 1.1%(627억원) 초과한 3조 6,769억원 조기 집행(62.0%), 하반기 100% 집행 예정
- 국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
  - \* 지역인재 ('21년 21% → '22년 24% → '23년 27% → '24년 30%)
  - \* 청년인턴 ('21년 5.5% → '21년 7%), 장애인·국가유공자(상근자의 3.4~6% 이상)
- 협력사,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경영지원 활동 확대
  - \*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, 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등(500건, 총 1,624백만원 지원효과)
  - \* 철도협력사 자금지원을 위한 협력펀드 규모 확대(200 → 300억원)

### ② 공정성을 강화한 계약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보호

- 기술력 있는 업체의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
  - \* 기술력 중심 평가, 입찰 공정성 강화, 적정 공사비 산정, 참여기회 확대 등 42건 개선
- 중소기업 우수기술 우대 등 희망사다리 역할 확대
  - \* 공법심의 시 우수기술 우대, 기술개발 협력펀드 확대 조성(20 → 30억원) 등
- 공사대금 및 임금을 보장하는 “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” 도입('21.1)
  - \* 적정임금제 및 고령근로자 보호 등 근로여건 개선 시범사업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

### ③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고강도 혁신방안 이행 등 조직문화 재정립

-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고강도 혁신방안 마련
  - \* 직무, 직급별 맞춤형 교육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기업까지 공감대 확산
- 형식적인 업무에서 탈피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부서별 직무 재정비
  - \* 청춘이사회, 세대간 소통채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 도출



#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(전국)

